


새해가 오면 끝까지  
부끄럽지 않게 해주소서.  
아이들과 꽃, 구름과 별  
풀과 나무, 착한 짐승들에게.

나해철 시인 '새해가 오면' 중에서

2024년, 어떤 꿈으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깃드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셨나요.  
어쩌면 올해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승진하기를 꿈꾸시나요.  
그것이 어떤 희망이든 당신을, 그리고 당신이 포함된 우리 모두를  
진짜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길 바랍니다. 참 사랑 담긴 소망이길 바랍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사무엘하 23:4)

 전주동부교회

# 동녘

동녘은 전주동부교회가 이웃들을 향해 보내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에스겔 43:2)



# 지금이 기회입니다

김 종 철 전주동부교회 담임목사



옛날 중국 북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의 말(馬)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위로하자 노인은 조금도 애석한 기색 없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아요? 이 일이 복이 될는지?”

몇 달 후 어느 날, 그 말이 오랑캐의 준마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축하하자 노인은 조금도 기쁜 기색 없이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아요? 이 일이 화가 될는지?”

그러던 어느 날, 말타기를 좋아하는 노인의 아들이 그 오랑캐의 준마를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위로하자 노인은 조금도 슬픈 기색 없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아요? 이 일이 복이 될는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오랑캐가 침입해 오자 마을 남자들은 이를 맞아 싸우기 위해 군인으로 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옹의 아들만은 절름말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나가지 않아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위 이야기는 잘 아시는 대로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고사성어에 얹힌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환율에, 주택값은 감당하기 힘든 정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의 연속입니다.





모두가 위기로 불안이라고 말할 때, “누가 아오? 이 일이 복이 될는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모든 것을 덮어놓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앞날의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살아가자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현재의 삶을 불안에 떨며 오늘 하루를 살기보다는 영원까지 내다보시고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길과 계획을 한 번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9)

단순히 상황이 변하기만을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솔로몬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맡긴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6~7)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지금의 상황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방의 노인처럼 그저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켜 주실 것입니다. 상황은 변해도 마음과 생각이 평안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위기는 곧 위험한 기회라고 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인생의 주인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삼 유방·갑상선  
세이유 乳 外科



원장 박 영 삼

T. 063.222.0325 (영삼이오) F. 063.221.0325

E. sayyou0325@naver.com

A. 전주시 완산구 쇠고개로 347, 2층 (도교육청 앞)

진/료/시/간

월, 수, 금 09:00~18:00

화(야간) 10:00~20:00

목,토요일 09:00~13:00

www.jsayyou.com

#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송윤강 장로 · 이준례 권사 부부



그가 들고 온 짐들 사이 스윽 나타나는 보은 병에 눈이 마주치면 사람들의 입에서 저절로 탄성이 나온다. ‘오늘도 저 맛있는 커피를 음미할 수 있겠구나!’ 주변 이들을 즐겁게 하는 송윤강 장로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한다.

송 장로는 원광대 의과대학 교수직에서 퇴임한 후, 지금은 군산 원광효도요양병원에서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커피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대략 15년째 전부터이다. 수술실에서 함께 일하는 후배 의사들이 출근 전 전문점에서 커피 한 잔씩을 사들고 오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다, 결국 본인도 진짜 커피 맛을 알게 되고 말았다. 관심 있는 분야는 깊이 파고 들어보는 성격이 발동해 좋은 원두를 고르는 방법과, 커피드립을 하는 방법까지 배워 일상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조금 더 부지런히 생활하기로 결심했다. 평일에는 병원에서 가장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자신이 직접 드립작업을 한 커피를 대접하고, 주일에는 일찌감치 교회에 나와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대원들을 섬겼다. 그가 머무는 공간마다 살짝 온도가 올라가는 게 느껴졌다.

아내 이준례 권사는 전북대 치과대학 구강외과 교수로 지내다, 지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서 전문의로 활동한다. 선한 미소와 밝은 성격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상대하며, 어려운 치료를 잘 감당해낸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전주동부교회 주일학교에서 꾸준히 성장했고, 학창 시절에도 탄탄한 신앙 속에서 동급생들과 ‘그루터기’라는 이름으로 두드러지는 활동을 펼쳤으며, 나



이 들어서도 여러 믿음의 친구들과 꾸준히 교제하는 등 전주동부교회의 진짜 토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전주 예수병원에서 수련의 시절을 보내다 선후배로 처음 만났다. 5년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둘 다 똑같이 마취과를 전공하는 데다, 독실한 신앙을 가진 공통점 덕택에 서로에게 이끌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짝’이라는 확신 가운데 결혼까지 이르렀다. 교회 생활도 주일 학교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신실하게 감당하며 교우들의 신망을 얻었다. 그 결과 부부가 차례로 2002년에 장로로, 2005년에 권사로 각각 직분을 받고 중직자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모든 삶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맞벌이 의사생활을 하고,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43년 세월에는 다른 사람이 미처 볼 수 없었던 아슬아슬한 굴곡들도 있었다. 그 세월을 견뎌내는 데는 두 가지 힘이 있었다. 이준례 권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죠. 그리고 여자도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며느리의 직장생활을 지지해주시고 집안 살림과 자녀양육까지 도맡아주신 시어머니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 사랑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커피 나눔은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극히 일부의 모습일 뿐이다. 지금 주어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인생에서도 부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 그대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한다.

| 이현미·정소연 기자



## 새해가 시작되다

송구영신예배 열며 회복의 2024년 기원



묵은해와 새해를 연결하는 송구영신예배로 전주동부교회 2024년 1월 1일이 시작됐다.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맞이하며 더 좋은 공동체, 더 나은 신앙과 삶을 소망하는 시간을 여러 성도들이 함께 했다.

김종철 목사는 이날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동행하는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우리들도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걸으며 복음을 통한 평화의 회복과 사랑의 회복을 이루어가자”고 축복했다.

전체 교역자와 당회원들이 성도들과 새해인사를 나누며 힘찬 새 출발을 다짐하기도 했다. 조국과 교회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전주동부교회 온 성도들은 시대를 짊어지며 이웃들을 더욱 정성껏 섬기는 2024년 사역에 돌입했다. | 정재영 기자

## 기도의 제단으로 새벽을 깨워요 온 세대가 함께 한 신년특별새벽기도회



뜨거운 기도의 불길에 전주동부교회의 새벽을 열었다.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신년특별새벽기도회를 개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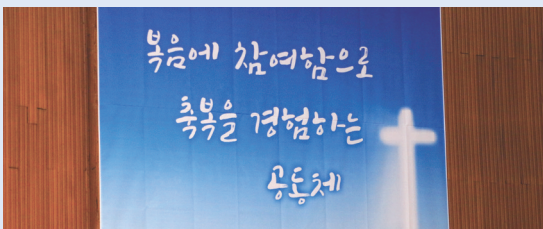
이번 기도회에서 김종철 목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

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말씀을 토대로 “진리 안에서 바른 성도의 자세를 갖추고, 진리 안에서 공동체의 화합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고 설교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각자가 뜨거운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마음껏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번 기도회 기간 교구별로 특송을 준비해 은혜를 더했고, 방학을 맞은 자녀세대들도 추위를 뚫고 기도회에 참여하여 연령을 불문하고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이 펼쳐졌다. | 이승은 기자

## ‘복음에 참여하는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2024년 교회표어 제정



전주동부교회 2024년의 표어가 ‘복음에 참여함으로 축복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정해졌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공동체’라는 2023년 표어에서 한 걸음 더 깊은 성숙으로 나아가자는 각오이다. 복음에 참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삶이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기원한다. | 정재영 기자



## 부모는 첫 번째 선생님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는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교회교육을 통해 변화의 출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높습니다. 교회교육에는 특히 부모님들의 기도와 협력이 더욱 절실하기에 <동녘>에서는 ‘교육칼럼’을 통해 학부부모님들과 공감하며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만남에서는 영유아기 연령대의 교육에 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영유아부 예배에 참석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부모님과 어른들은 더욱 모

범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중에는 어린 참석자들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서가 진행되는 동안 예배에 집중하며, 성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훈련이 옷차림, 신발, 언어, 행동 모든 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 인도자나 교사 역할을 맡아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 1. 간단하고 명확한 이야기

|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성경이야기를 선택하여 아이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합니다.

### 2. 비주얼 도구 활용

| 그림책이나 일러스트를 통해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면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 3. 대화와 질문

| 이야기를 통해 성경적 가치에 대한 대화를 유도하고, 아이의 궁금증에 대답해주면서 상호작용을 높입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부모님의 노력

이 필요합니다.

### 4. 양식에 구애받지 않기

| 기본적인 도덕이나 인간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5. 자연스러운 일상 속 대화

| 일상적인 상황에서 말씀의 가치를 담아 대화하면, 아이들 스스로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실천가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앞으로 이 공간을 통해 부모님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도 기대합니다. | 최조경 기자



## 전주동부교회 영유아부를 소개합니다



■ 2024 표어 |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유아부

■ 주 제 말 씀 |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

전주동부교회 영유아부는 0세에서 4세까지 어린 자녀들을 섬기는 부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교육으로 믿음의 기초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교육을 통하여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교역자 | 김성록 목사

■ 부 장 | 이기종 집사 ■ 총 무 | 소겸애 집사



## 커피 마실래요? / 결혼할래요?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의 시청자들은 차인표-신애라, 선-정해영 부부에 이은 또 한 쌍의 아름다운 크리스천 커플을 만났다. 바로 CCM 작곡가이자 가수인 유은성과 베테랑 배우 김정화 부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등의 곡들로 잘 알려진 유은성씨는 2023년 초 SNS를 통해 자신의 뇌종양 발병소식을 밝혔으며, 이 내용이 방송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면서 안타까움과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부부가 공동저자로 함께 집필한 <커피 마실래요? 결혼할래요?> (꿈이있는미래 출판)에는 방송에서 다 전하지 못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담겼다. 두 사람의 각자 성장기부터 만남과 결혼, 두 아이의 부모가 되면서 신앙적으로도 점점 성장해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된 과정을 마치 커피 원두가 바리스타의 로스팅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비유한 스토리 구성이 참으로 절묘하다.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찬양사역자의 길을 걸어온 유은성씨는 이 책을 통해 아내를 만나고 자녀들을 얻도록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과 감사의 고백을 전한다.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에 감사하는 그의 자세를 보며 독자들은 마치 감사와 순종의 표본을 만난 듯한 느낌을 받는다. 반가운 소식은 유은성씨의 상태를 진단한 결과, 당장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정이 나와 현재는 추적관찰을 하는 중이란 사실이다. 배우 김정화씨는 최근 방송 활동은 다소 줄어들었어도, 그 대신 하나님께 더욱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편과 좋은 동역자로서, 서로를 위한 버팀목으로서 함께 예쁜 인생을 걸어가며 사람들 가슴에 깊은 감동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커피전문점 알리스터를 창업하여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케냐지역 선교사역을 후원하거나 사회공헌단체들에 기부한다. 이 부부의 진정한 소망은 자신들의 모습과 행실들로 인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방송에서 통편집되곤 했던 부부의 신앙 관련 장면들이 점점 고스란히 방영되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도 이와 동일하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었다고 이야기한다.(이사야 43:21)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아름다운 선율과 목소리와 악기로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

| 김형열 기자

## BOOK



유은성 김정화 저 \_ 꿈이있는미래 출판

### <동녘>을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김종철  
편집인: 안효건  
제작팀: 정재영(팀장)  
김형열 윤미영 이승은  
이현미 정소연 최조경

발행처: 전주동부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관산대로 88  
전화 (063) 275-7760  
홈페이지 www.cjdb.or.kr

전도편지 <동녘> 제작을  
후원하실 분들은 1구좌당 5000원씩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계좌 > 카카오뱅크  
3333-29-3293494(예금주/이현미)

# 당신을 초대합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을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앞장서 이끌어주고, 평생 동행하며 힘이 되어줄 존재를  
모든 인생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족, 친구,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진리로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교회는 그 사랑, 그 진리를 따르는 이들이 모이는 생명공동체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에서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고, 참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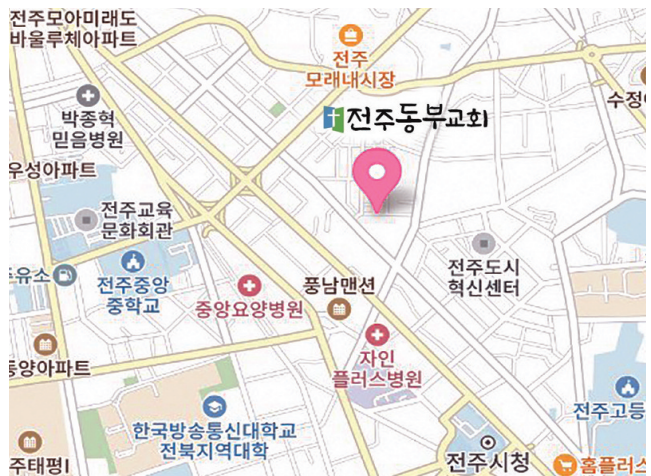


**전주동부교회**는 한국교회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중전주노회 소속으로, 1933년 10월 15일에 설립되어 9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특히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따르는 공동체로서 정체성과, '학생교회'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다음세대 사역에 전념하여 큰 열매를 거둔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 예배 및 모임 안내

새벽예배		매 일 05:00		본당
주일 1부		일요일 09:00		본당
주일 2부		일요일 11:00		본당
찬양예배		일요일 15:00		본당
수요예배		수요일 19:30		본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20:30		본당
영유아부		일요일 11:00		교육관 1층
유치부		일요일 11:00		본당 지하 1층
유초등부		일요일 11:00		교육관 2층
중고등부		일요일 09:00		교육관 3층
대학청년부		일요일 13:00		본당 4층
부부모임		일요일 13:00		지정 장소

## 찾아오시는 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88 063) 275-7760~1